

주일학교 초등부 문화 마을 여름캠프 주임 신부님과 함께



나는 양초공예 견학을 마친 후 신부님과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가져, 어린이들의 몸집은 작고 희망은 큰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초등부 주일학교 미사도 현지에서 집전해 주시는 주임 신부님의 배려도 있었다.

매년 초등부 주일학교는 어린이들의 독립성과 신앙의 공동체를 몸소 실천하면서 먼 훗날 그들의 기억 속에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다가올 시흥4동 성당의 공동체 신앙 활동에 선구자로서 기초 신앙심을 심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이다.

참가했던 청소년분과장의 말을 인용하면 ‘첫날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이 집안에서 학부 모님들께서 주시는 인스턴트 식품과 각종 화학조미료를 사용한 음식에 맛이 들어 문화 마을에서 나오는 엄마의 천연 밥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첫째 날은 편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나 다음날부터 식단에 나오는 음식에 별 다른 트집 없이 잘 먹고 울창한 숲속에 마련된 야외 풀장으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물장난과 수녀님께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도 보았다’ 고 하였다.



우리 이웃 눈높이에 맞추어 하느님께 기도 드려야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8월 11일 오후 6시 토요일 특전미사를 본당 출신 김원호 바오로 신부님께서 집전하면서 복음 강론에서 ‘제가 오늘 여기에 오기 전 화곡동 성당 초등부 미사를 집전하여 강론하기 전에 초등학생들에게 “신부님이 강론 길게 하는 것과 짧게 하는 것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어떤 것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자 다들 “짧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신부님 강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하느님을 맞이하는 기도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나를 떠나 여러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의 눈높이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그 높이를 하느님께서 알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 고 강론하였다.

